

# 수행, 문화, 복지의 조화



5월 열린 걷기대회서 참가자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정념 스님



단기출가 참가자와 오대산 북대산행을 하며 주변 역사를 설명하는 정념 스님



정념 스님이 단기출가학교 참가자에게 출가전 식발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

행·문화·복지 등 3대 영역의 조화로 잡았다.  
 “오대산 일원에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적 수행·문화·건강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월정사 경내는 선원과 노인복지시설, 단기출가학교를 포함한 시민선방,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등을 갖춘 종합수행·신행·문화 도량으로 가꾸게 되지요.”

### 2012년 불교수행관 문수선원 개원

2012년 5월 불교수행관 문수선원을 개원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향후 월정사가 지향하는 목표도 밝혔다. 정념 스님은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 700m 고지의 월정사는 전나무 숲길 등 풍성한 자연환경과 적멸보궁 및 다수의 산내 암자 등 수많은 불교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 오대산은 템플스테이뿐 아니라 명상, 수행, 치유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두루 갖춘 최고의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정사 불교수행관 문수선원(선원장 정념 스님)은 2009년 12월 착공, 2년 6개월 공사 끝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464.04㎡(745.37평)로 건립됐다. 지상은 요사채와 사무실 등 5개동 474.48㎡(143.53평)이며 지하는 1개동으로 1989.56㎡(601.84평) 면적에 수행관을 비

롯해 관리실과 기계실로 구성됐다. 최대 15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상설 수행관이다. 문수선원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이다. 월정사는 지난 2008년 스님들 수행처인 ‘만불선원’ 개원에 이은 문수선원 개원으로 명실상부 강원도 최고 불교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념 스님은 “문수선원은 자연과 불교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재충전 장소이자 수행처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수성지 오대산서 피어나는 수행 열기는 한국 불교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웰빙 명상수행단지 조성이 큰 숙원불사

앞으로 정념 스님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은 월정사 사하촌에 ‘웰빙 명상수행단지’를 조성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면서 사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 그런 분들을 위해 명상수행 공간과 약초 산채 등 산촌의 건강음식, 한방 의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웰빙 명상수행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정념 스님은 오대산만의 특화된 산중 스토리를 현대에 맞게 콘텐츠화해 대중 앞에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대산에 있는 국보 48호인 월정사 8

각9층 석탑은 한국 석탑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문화재입니다. 탑들이 문화를 잘 복원해 현대적으로 변용시킨다면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정사 탑돌이’가 문화올림픽의 중심이 되려면 전통을 살려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해 현대화하는 이원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탑돌이 원형은 보존하면서 한편으로 뮤지컬이나 전통공연과 접목해 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월정사 앞마당을 무대와 관객석으로 활용하고 각종 의식과 공연을 대중들과 함께 하는 형태로 만든다면 평창을 찾은 외국인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정념 스님은 “현재 힐링 문화들이 서구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불교는 힐링에 대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힐링문화를 불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불교적 수행법을 모델로 해서 현대인들에게 어필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산중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해 세계인들이 한국적 불교 힐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불교 문화가 세계 속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익 기자 kimj4217@hyunbul.com

## 전법일기

### 내가 포교 당했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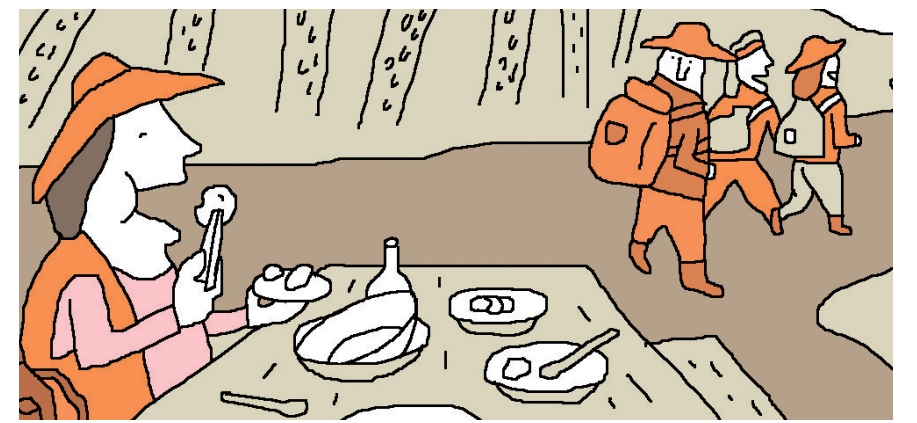
8월의 마지막 밤의 날씨가 제법 선선했다. 참으로 계절 주관자가 누구일까. 달력도 보지않으면서 어떻게 9월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

아침에 어느 보살이 초하루법회 하나 고 불었다. 초하루 법회가 아니고 오늘은 음력 초여드레 약사재일법회 한다고 알려주었다. 약사재일법회 던 무슨 법회 던 9월 첫째 날 하는 법회면 그것도 초하루 법회 아니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언젠가 법타스님께서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오래 지났는데도 절에서 음력을 기준으로 법회를 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양력에 맞춰 생활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이격되어 불교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셨다. 공감이가는 말이다. 주부들

식사를 마친 후라서 일어나버렸다. 그런 데도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혼자 힘겹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져 먹는 걸 도와(?) 주었다. 그때 그는 씩 웃으며 태연하게 ‘아침 조금 든든히 먹어두면 낮에까지 배가 잘 안고파져요’ 라고 했다.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은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산행을 하면서 자주 그 여자 대원의 행동과 말이 떠올랐다.

한참 후 어느 토요일, 산행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그 보살을 마주했는데 조계사 청련회에 간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절에 갈까 생각했지만, 그 날 산행에서 보여준 행동에 관심이 끌려 같이 조계사로 가게 되었다.



그림·박구원

중심으로 사찰이 운영된다고 하여 보살 절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서 탈피하려면 반드시 사회의 생활양식과 사찰의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이와 함께 법랍도 늘다보니 이제 자꾸 불교계와 승단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불교의 사회적 위치와 승단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보답 할 수 있을지를 자주 생각하게 한다. 어떻게 내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느꼈던 환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초발심자들을 더 깊은 불교의 깊고 환희로운 세계로 이끌어 들일 수 있을까? 늘 안타까운 마음과 불교계에 빚진 듯한 생각에 젖어들곤 한다.

처음 불교에 발을 들인 기억을 떠올려 봤다. 참으로 인연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 되었다. 언젠가 덕유산으로 등산을 갔을 때였다. 산행을 하고자 아침을 준비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 서려는데 같이 식사를 하던 여자대원이 음식이 조금 남았으니 다 같이 깨끗이 먹자고 말 했다. 대부분이 만족 할 정도로

그날 첫 걸음 이후 불교는 더없는 매력으로 내게 다가 왔고, 6개월 후 출가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출가 후 지금까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던 그날 그 사람의 모습은 늘 일상의 지침이 되고 있다.

전법은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대한 활동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음식을 함부로 남기지 말라. 이 작은 규범을 지키려 애쓰던 어린불자의 모습으로 인해 한명의 불자, 한 스님이 되게 한 인연이 되지 않았는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위의를 지키며, 항상 유화선순(柔和善順)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전법인 요 포교활동일 것이다.

가을이 왔다. 고깃배 불빛 가득한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본다. 나도 이 가을 누군가의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싶다.



성원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 관음성지 용왕 전문도량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스님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아래와 같이 불교TV에서 경전 강의

### - 아래 -

- 경전 : 법진스님의 수행의 근본지침 - 42장경
-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9월 24일은 강의 없음>
- 장소 :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문의 : (02)3270-3300



법진스님

무상사 법당에 오시면 직접 법진스님의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법진스님 <42장경> 강의 불교TV 방영시간 안내 \*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 화요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10시와  
 매 일요일 새벽 2시에 불교TV(BTN)로 방영됩니다.

### ■ 불교 TV 채널 안내

- \* IPTV : KT(233), SK(555), LG(185)
- \* 스카이라이프 : 411(전국공통)
- \* 케이블TV 채널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전화문의 바람 (02-3270-3355)
- \* 인터넷(www.btn.co.kr) 및 모바일(m.btn.co.kr)에서 무료 다시보기 가능

능가산 내소사 전라북도 부안군 전서면 석포리 268번지 T 063.583.7281 F 063.583.7280 www.naesosa.org

Gwaebul Ceremony

## 세번째 괘불재 掛佛齋 그리고 열두번째 가을산사음악회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괘불재\_오후 1시

가을산사음악회\_오후 6시 30분

현진우, 추가열, 심진스님, 프롤로그, 박강수  
노래사랑 앙상블, 강명진, 들국화 패밀리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